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기택

뉴스초점

국내 닭고기 우수성 홍보

지하철에 광고 게재키로

금년 9월 이후 육계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육계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닭고기의 국내 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와 종계분과위원회, 한국계육협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자조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총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지하철 1, 2, 3, 4, 5,호선에 총 2,280매의 광고전단을 부착하여 금년 12월과 내년 1월, 2개월간 홍보하기로 하였다.

육계는 물론 병아리 가격, 닭고기 소비 침체에 이르기까지 육계산업은 근자들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소비활로를 모색키 위해 이같이 홍보사업을 펴기로 하였다.

육계 산지시세 및 중량 기준마련

가격 현실화와 기준 세분화

우리나라 육계시세와 출하중량에 대한 기준은 주체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어 늘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하량에 변화가 클수록 기준은 임의성이 커서 농가의 손실이 많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지난 달부터 가격과 중량 기준을 거래시세와 상(1.6kg 이상), 중(1.6kg 미만, 1.4kg 이상), 하(1.4kg 미만)로 구분하여 발표하되 당분간은 홍보기간으로 종전의 기준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과 이해부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격이 현실화되고, 중량 기준이 확실하

여 마찰이 감소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전 축종 화합의 장 마련**

본회를 비롯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한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성대히 개최되어 8만3천여명이 참관하는 대성공을 올리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산박람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전개"란 주제를 내건 이번 축산박람회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시켜 축산업을 보는 시각을 넓혔다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계산을 생산증가 예상보다 커
장기 불황에고로 연말 경기 불투명**

양계산물인 계란, 닭고기는 물론 병아리, 노계 가격에 이르기까지 산지 출하가격이 생산비선 이하로 하락하여 양계업계를 어둡게 하고 있다. 부문마다 생산량 증가 폭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적정량(소비성향까지 감안)보다 약 30% 정도의 과잉생산 수준에 놓여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 신속한 생산조절로 위기를 극복했던 그 때와는 달리 가격안정의 바탕 위에서 사육수수 증가에 관심이 높아 결국 대공황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

의 목소리도 높다.

**사랑의 계란 보내기 운동 전개
한국복지 재단에 350만개 기증**

본회는 연말을 앞에 두고 불우 이웃에 양계인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뜻으로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사랑의 계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약 350만개의 계란을 모아 한국복지재단 등 사회시설에 기증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본회 각 도지부 및 분회에서 출선수범하여 참여 함으로써 불황의 고통 속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양계인들의 훈훈한 이웃사랑 정신이 발로되어 흐뭇함을 더해 주었다. 모금 내역을 보면 본회가 12만6천개, 대한계란유통연합회 7만개, 대한계란유통협회 22만4천개, 이 일회 현금 420만원이었다. 난가 하락시기에 본 운동을 전개하여 이웃사랑과 경기회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수매비축자금 33억 긴급 배정**

농림부는 육계 산지출하가격이 수개월동안 생산비 이하로 하락됨에 따라 육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대책으로 닭고기 수매 비축자금 33억원을 '99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축협조합(양계) 및 육계 계열화 업체로 3개월 거치 일시상환으로 필요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축협조합은 5%, 계열화 업체는 8%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업체 중 닭고기를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되며, 자금지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비축해야 한다. 양계